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⑧ 위앙종풍의 특징과 그 전개



▶ 한줄 요약
중국의 위앙종을 전승한 순지는 선리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원상(圓相)을 활용했으며, 화엄교학과 선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순지, 깨친 후 실천방향 구체적 제시

한국의 선종사에서 소위 나말 여초에 출현했던 구산선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선종 오가 가운데 위앙종(潙仰宗)의 전승으로 형성된 오관산 순지(順之)의 역할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중국 위앙종의 선풍을 전승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시에 팽배해 있던 화엄교학과 선의 융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선리의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원상(圓相)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 순지

오관산 순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의 비문 '了悟和尙碑', 〈조당집〉 권20 등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 이에 의하면 평안도 패강(浿江, 현 대동강) 지역 출신으로 속성은 박(朴)이고 생몰은 미상이다. 황해도 오관산(五冠山) 오관사(五冠寺)에서 삭발하고, 속리산으로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 헌안왕 2년(858)에 입당하였고, 중국 위앙종의 조사인 앙산 혜적(仰山 慧寂, 807~883)에게 공부하였고, 그 법을 계승하였다. 거기에서 순지가 앙산에게 공부한 모습은 마치 안회가 공자 곁에 머무는 것과 같고, 가섭이 부처님의 앞에 머무는 것과 같았다고 전한다. 귀국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후 874년에는 신라의 왕실에서 송악군(松岳君)의 원창왕후(元昌王后) 및 아들인 위무대왕(威武大王)이 오관산 용암사(龍巖寺)를 희사하였는데, 이후에 서운사(瑞雲寺)로 개칭하였다. 65세에 입적하였는데, 호는 요오(了悟)이며, 탑명은 진원(眞原)이고, 제자로 승현(曾玄), 낭허(朗虛), 영광(令光) 등이 있다.

2. 표상현법의 원리

순지의 선사상의 근본은 표상현법(表相現法, 圖相現法)과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순지가 보여준 표상현법이란 형상을 드러내어 불법의 이치를 설명한다는 것인데, 주로 원상을 활용한 까닭에 원상현법이라고도 말한다. 이를테면 갖가지 부호 · 상징 · 그림 등을 제시하여 선의 이치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위앙종의 표상현법은 방(方)과 원(圓)이 잘 계합된다는 의미에서 방원묵계(方圓默契)라고도 한다. 〈조당집〉에는 구체적으로 18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지겸(至謙, 1145~1229)이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선어록에 제시되어 있는 표상현법과 관련된 법어 내지 원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원상의 방법을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은 남양 혜충(南陽 慧忠?~775)이었다. 혜충은 어느 날 한 승이 찾아오자 손으로 땅에다 원상을 그려놓고 그 안에 '일(日)'이라는 글자를 써넣었다. 이로부터 혜충은 96가지 원상을 확보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납자들을 교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혜충은 일찍이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처음으로 활용한 선사로 알려져 있는데, 표상현법의 경우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혜충이 활용한 96종의 원상은 그의 제자 탐원 응진(耽源 應眞)에게 전승되었다. 응진은 이것을 활용하여 예언적인 참기(讖記)와 함께 위앙종의 조사인 앙산 혜적에게 전승하였는데, 앙산은 그것을 위앙종풍으로 확립하였다.

이들 96종의 원상에 대하여 일찍이 명주(明州)의 양화상(良和尙)이 40칙으로 정립하였는데,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여섯 가지 명칭으로 분류된다. 하나, 원상(圓相)은 절대의 진실인데 그 자체로 드러난 것이 일원상이라는 것이다. 둘, 의해(義海)는 모든 삼매의 뜻이 일원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 암기(暗機)는 주 · 객의 대립이 발생하기 이전의 작용을 가리킨다. 넷, 자학(字學)은 일원상이야말로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이다. 다섯, 의어(意語)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여섯, 묵론(默論)은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의미에 부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명칭은 원상이 본래부터 그 자체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뿐만 아니라 그 작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화의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다.

3. 표상현법의 교화방편

(1) 순지는 원상을 표현하여 불법을 나타냄으로써 납자들에게 깨침을 증득하는 것에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사대팔상(四對八相)이고, 둘째는 양대사상(兩對四相)이며, 셋째는 사대오상(四對五相)이다.

첫째, 사대팔상은 불성(佛性) 및 불성을 깨닫는 행위를 상대시킨 것으로서 일종의 교화방편에 속한다. 제일대는 소의열반상(所依涅槃相) 대 우식인초상(牛食忍草相)이다. 소의열반상[○]은 열반에 의지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불성(理佛性)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고, 불성을 활용하는 형상이라고도 말한다. 우식인초상[원상 안에 牛字가 들어 있다]은 마음을 의미하는 소가 깨달음을 의미하는 원상에 계합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견성성불상(見性成佛相)이라고도 말한다.

제이대는 삼승구공상(三乘求空相) 대 노지백우상(露地白牛相)이다. 삼승구공상[원상 안에 牛字가 세 개 들어 있다]은 삼승이 공을 추구함에 점차적으로 불성을 터득한다는 것이다. 노지백우상[원상 안에 牛字가 들어 있다]은 일승을 가리키는 백우(白牛)로서 법신을 터득한 모습으로 방편이 아닌 진실을 가리킨다.

제삼대는 계과수인상(契果修因相) 대 인과원만상(因果圓滿相)이다. 계과수인상[원상 안에 牛字가 들어 있다]은 과에 계합하는 인을 닦는 모습을 나타낸다. 인과원만상[원상 안에 卍字가 있다]은 인(因)과 과(果)가 모두 원만한 모습을 나타낸다.

제사대는 구공정행상(求空精行相) 대 점증실제상(漸證實際相)이다. 구공정행상[원상 아래 牛字가 있다]은 여법하게 수행하여 공을 깨닫는 모습을 나타낸다. 점증실제상[원상 안에 王字가 있다]은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나타낸다.



강서성 의춘 서은사에 있는 앙산 혜적 선사 사리탑. 사진제공=정운 스님

순지, 중국의 위앙종 선풍을 전승해 부호와 상징 등 제시 禪이치 보여준 표상현법, 方 · 圓 계합된 '방원묵계'

둘째, 양대사상은 원상과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허(虛)를 버리고 실(實)로 나아가는 수증관을 보여준다.

제일대는 상해유교상(想解遺敎相) 대 식본환원상(識本還源相)이다. 상해견교상[원상 안은 人字이고 원상 위는 牛字이다]은 분별상과 분별지해를 일으키는 교학을 버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식본환원상[원상 위는 牛字이다]은 근본[本]을 이해하여 근원[源]으로 돌아간다는 모습을 나타낸다. 병은 없애고 법은 남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대는 미두인영상(迷頭認影相) 대 배영인두상(背影認頭相)이다. 미두인영상[원상 안은 人字이고 언상 아래는 牛字이다]은 머리를 모르고 그림자에 홀린 것으로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밖으로 헤매는 모습을 나타낸다. 배영인두상[원상 안에 人字이다]은 그림자를 물리치고 머리를 찾은 것으로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모습을 나타낸다.

셋째, 사대오상은 네 개의 상[四相]은 상대가 있지만 마지막 하나의 상(相)은 상대가 없는 것이다.

제일대는 거함색개상(擧函索蓋相)[( ) 대 원상(圓相[○])이다. 거함색개상은 원상 안에 왼쪽 반원의 모습만 있는 것이다. 함(函)을 의미하는 오른쪽 반원[ )]에다 뚜껑을 의미하는 왼쪽 반원을 씌워서 원만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이대는 파옥멱계상(把玉覓契相) 대 모(某)[원상 안에 某字가 있다]이다. 원상[○]은 옥(玉)을 가지고 서로 계합하는 것을 찾는 모습이다. 누가 이 원상의 뜻을 물으면 원상 안에다 아무 글자나 써준다는 것이다.

제삼대는 조입색속상(釣入索續相)[원상 안에 厶字가 있다] 대 원상[○]이다. 이것은 낚싯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찾는 모습으로 정법안장을 계승할 후계자를 찾는 모습을 나타낸다.

제사대는 이성보기상(已成寶器相)[원상 안에 佛字가 있다] 대 토(土)[원상 안에 土字가 있다]의 상이다. 이것은 이미 보배그릇 곧 깨달음을 성취한 것인데 대지와 같이 모든 공덕과 자비를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제오대는 현인지상(玄印旨相)[원상 안에 土字가 있다] 대 무상(無相)[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다. 이것은 심오한 종지를 성취한 것인데, 이후에는 모든 형상을 초월하여 다시는 일체의 교의에 구속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2) 이처럼 순지는 사대팔상(四對八相) · 양대사상(兩對四相) · 사대오상(四對五相)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납자에게 빠르고 더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이라는 법어로써 자세하게 풀이하였다. 삼편의 첫째는 증리성불(證理成佛, 體性)이고, 둘째는 행만성불(行滿成佛, 果德)이며, 셋째는 시현성불(示顯成佛, 敎化)이다.

증리성불은 선지식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자기의 마음은 본래의 일불도 없음을 활짝 깨닫는 성불이다. 만행을 차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리성불이라고 말한다.

행만성불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하고 다시 보현의 행원을 따라 보살도를 널리 닦아서 수행을 고루 갖추고 지혜와 자비를 원만성취하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고 말한다.

시현성불은 증리성불과 행만성불로 마치고서 중생제도를 위하여 시현하는 것인데, 마치 석가모니의 팔상성도(八相成道)와 같다.

(3) 이상은 표상현법으로 교화하는 방식에서 이론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하 첫째 돈증실제(頓證實際), 둘째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 셋째 점증실제(漸證實際)는 표상현법이 실천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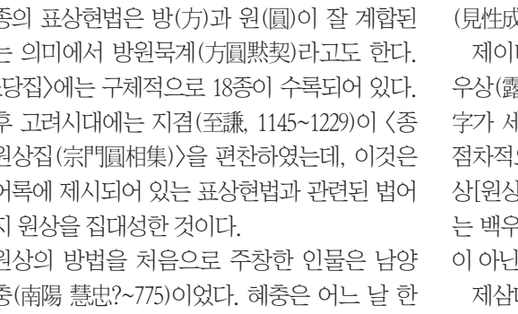
돈증실제는 실제 곧 깨달음을 돈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견성 이후 교화행을 펼칠 때 일체의 번뇌를 초월해 있는 보습에 해당하는 출전보현(出纏普賢), 일체중생과 동류대비(同類大悲)하는 입전보현(入纏普賢), 출전보현의 대지(大智)와 입전보현의 대비(大悲)에 머물지 않고 수연방편을 실천하는 과후보현(果後普賢)이 있다. 이들 세 가지 보현은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 차원의 보현으로 나눈 것이다.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는 방편수행인데,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사대팔상(四對八相) 가운데 삼승구공상(三乘求空相)에 해당한다. 방편의 점교로써 삼승의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점증실제(漸證實際)는 점교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인데, 수행 이후에 깨치는 것이다.

이처럼 순지가 보여준 사대팔상 · 양대사상 · 사대오상의 표상현법이 이론의 측면으로는 삼편성불론으로 제시되었고, 실천의 측면으로는 삼증실제편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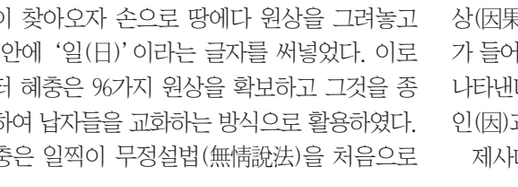
이로써 순지의 표상현법은 선법을 이해시키려는 방식으로 표상현법을 제시하면서 그 이론적인 근거로 화엄사상을 빌려온 것이다. 특히 삼증실제설은 화엄사상을 선종의 입장에서 깨친 이후에 실천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사상의 중심 문제는 돈오한 이후에도 납자가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근기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동귀일미(同歸一味)의 시절에 도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삼편성불론에서 선인(仙人)과 은사(隱士)의 문답으로 선리를 이끌어 가면서도 서로 걸림이 없는 교리의 전개는 한국 선종사에서 보여준 대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동국대 HK교수〉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불기 2565년 건학75주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인격 완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광동고등학교 교장 이천기
의정부광동고 교장 김석희
광 동 중 학 교 교장 김중철
법인사무국장 정용수
수 석 교 법 사 권준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법인사무국 : 031-572-0559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